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무너진 원로권위

지난 6월 있었던 조계종 원로의원 모임, 이 자리에서 지난 해 조계종사태 초기에 원로들이 의견을 모았다면 온세상에 불교를 망신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로들 스스로 지혜에 밝지 못했다는 자탄이 배어 있었다.

이날 모임의 얘기가 아니라도, 최근 원로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원로급에 속한 스님들에게서도 그렇고,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원로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격정의 소리가 나온다.

원로는 덕행이 높은 연정의 스님을 통칭해서 부르는 존칭이다. 장로(長老)라는 말과 함께 쓰이지만, 요즘은 원로라는 표현이 더욱 익숙하다. (아미타경) 등의 경전을 보면, 비구계 수계 이후 20년을 장(長), 나이가 많은 것을 노(老)라 한다.

원로의 권위 추락은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며 겪었던 가족체, 공동체가 붕괴되는 흐름과 유행을 같이 한다. 수행과 법맥이 중심이었던 불교가 지금은 사찰 경제력을 지닌 주지, 행정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했다.

행정 중심은 자연히 효율성이 미약이라는 유혹이 따지며, 여러 의견 특히 원로들의 경험과 수행력은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결핍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행 중심의 교단이 되지 못하고는 원로의 실 지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원로들 스스로 권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사태 당시 많은 불자들은 종단이 원로들이 나서 잘못을 고쳐주길 원했다. 그러나 원로들도 사본오염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으며, 이는 결국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그렇듯 불교도 연륜과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상호영양으로 발전한다. 더욱이 한 집단의 중심인 원로를 잃어버리면, 그 손실은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자명한 사실을 끊임없이 봐야 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인터넷 전자문화지도 펴면 한국불교 보인다

이카이 코리아, 서울지역 사찰등 전산화 작업중

세계의 모든 불자들이 인터넷 전자지도로 펼쳐 놓고 한국불교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결성된 '이카이 코리아(KCAI Korea·팀장 이해은 동국대교수)'가 불교를 비롯 한국의 전통문화를 디지털(digital)로 제작, 인터넷 전자지도에 게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카이(electronic culture atlas information)는 90년 루이스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라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세계 각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술, 전직, 불교, 생태학, 철학을 시별로 전산화·지도화하는 범세계적인 규모의 합동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중국, 남아시아, 러시아, 실크로드 등 13개 나라의 단위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이카이 코리아는 98년 독일 하이델베르거에서 개최된 3차 대회에서 결성됐다.

이해은교수는 "인터넷 전자문화지도는 디지털로 가공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를 제공하게 된다"며 "불교학·철학·지리학·역사학 등 모든 영역의 성과물이 응집되는 사이버 대작불사포교·교육·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카이 코리아는 서울을 본포하고 있는 1천4백30여개 사찰과 궁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무형의 문화·문화재를 정확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하는 한편 동영상, 그래픽, 음성정보, 텍스트 등의 자료를 전자지도에 올리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해은·성효현교수가 전산화하고 있는 이 정보는 인공지능을 이용, 정확한 경도와 위도를 산출해내는 GIS(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화·문화재를 제작하고 있어 기존의 지리 정보와 비교해 한층원 높다는 평가다. 내년 초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일반 네티즌들의 포교·교육 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승(高僧) 및 설화·민속극·관소리·무속과 같은 문화예술자료 전산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산화 작업에는 팀장인 이해은교수를 비롯 김중규(고려대), 심재용(서울대), 윤이홍(서울대), 조성택(미국 뉴욕주립대), 진달스님(동국대) 등 11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 성과물이 크게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에 소요될 예산 규모는 총 1백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학살진흥재단과 정보통신부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해 놓고있다.

이해은교수는 "이카이 코리아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의 중심축은 불교이지만, 대장경을 제외하고 전산화된 불교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nia.com)



1999년 8-15 공복절 경리 제1회 만해축전
만해학 국제학술대회
 1. 만해학의 의의
 2. 만해학의 연구 방법론
 3. 만해학의 연구 동향
 4. 만해학의 연구 과제

등불로 다시 오신 만해스님
 만해 한용운스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만해축전이 만해학의 고향 설악산 백담사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연인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5·16일 양일간 만해문학의 세계적 인식이란 주제로 열린 만해학국제학술대회에는 우리·러·미·일본·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헌정신을 조명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조계종총무원장 고신스님은 개막식 법어를 통해 만해축전이 새로운 세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랐다.

(관원기자 9인) 사진: 고영배 기자(ybgo@buddhania.com)

中信會 회장에 백창기씨 선출

단일후보 찬반투표 의결정족수 '논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회장에 백창기(67·공주전남야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가 선출됐다.

중앙신도회 선관위원회(위원장 조영환)는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단일 회장추진인 백창기씨에 대한 찬대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170명 가운데 찬성 86표, 반대 80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백창기씨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중앙신도회 회칙 제18조의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 조항에 따르면 출석 대의원 196명중 86명만이 추대에 찬성,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해 회장 선출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장 선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천 석왕사 재직신도인 백창기 신임회장은 55년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 59년 해병 중위로 예편했으며 60년 한양고·한양공고 수학과사를 지냈다. 69년 한양개발(주) 상무이사, 94년 태도개발 대표를 역임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nia.com)

"그린벨트 해제 절대 안된다"

조계종·재가연대등 5개단체 반대운동 펼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조계종사회부 재가연대 도농공동체 운동본부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연대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사찰인근지역을 무기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불교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당사찰 교육을 강화하고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과 연대하여 활동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 관련 정부주무부처인 건교부 알 소단위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홍보작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 전관사 등 전국 50개 사찰이 개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wkim@buddhania.com)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공청회

사찰환경대책위, 9월15일 조계사에서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불교대학위원회(공동대표 성조)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9월 1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친환경적 사찰만들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공청회는 최근 들어 사찰환경 침해사태가 빈번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분별한 허가 낱말, 사찰인근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찰만들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사찰인근지역을 무기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불교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당사찰 교육을 강화하고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과 연대하여 활동키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 전관사 등 전국 50개 사찰이 개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wkim@buddhania.com)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예천군 윤문면 소재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는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진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정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신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 송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는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살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 제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 동(1인당)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용문사
 우 체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읽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운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용문사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합차량 주차 가능